

민주연구원,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핸드북: 경남편’ 발간 “미래 동력 걷어차고 측근 행기기에 바쁜 박완수 도정의 ‘잃어버린 3년’ ”

- 이재영 원장, “경남의 위기는 리더십의 부재에서 기인… 이번 보고서는 무너진 도민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비상한 제언”
- ① 미래 비전 실종(메가시티 파기·남부내륙철도 지연) ② 민생 위기(의료·청년 유출) ③ 사유화된 권력(측근 인사·명태균 게이트) 등 3대 실정(失政) 고발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의 시정을 심층 분석한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핸드북(경남) : 경남도민의 눈물』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박완수 지사 취임 이후 경남의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도민의 삶의 질이 추락한 구체적인 실태를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적나라하게 파헤쳤다.

이번 핸드북 발간과 관련하여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한때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이었던 경남이 지금은 ‘소멸의 위기’와 ‘리더십의 부재’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이번 평가는 단순히 실정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도민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무능한 지방정부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경남의 재도약을 위한 절박한 호소”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박완수 도정의 난맥상을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했다.

첫째, 경남의 성장판을 스스로 닫아버린 ‘미래 비전의 실종’이다.

민주연구원은 박완수 지사가 취임 직후 전임 도정의 성과인 ‘부울경 메가시티’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을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충청권 등 타 지자체

가 통합에 속도를 내는 동안, 경남은 후발주자로 전략했으며 행정통합 논의조차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부경남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적정성 재검토 등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고 완공 목표가 2027년에서 2031년으로 늦춰졌음에도, 박 지사는 뒤늦게 대응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둘째,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민생·안전의 붕괴’다.

경남의 청년(19~39세) 인구 유출은 최근 3년간 5만 6천여 명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박 지사는 “수도권 상황이 나빠지면 청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안이한 방관자적 태도를 보여 빈축을 샀다. 의료 지표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경남의 암 사망률은 전국 1위(인구 10만 명당 88.8명)를 기록했으며, 65세 기대여명은 20.8년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지표임에도 경상남도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셋째,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린 ‘권력의 사유화와 불통’이다.

도청과 산하 기관이 전문성 없는 선거 공신들로 채워지는 ‘보은 인사’로 얼룩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축구 행정 경험이 전무한 측근을 경남FC 단장에 임명해 구단 성적 하락을 초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같은 당 소속 도의원의 비판조차 용납하지 않고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호통치는 독단적 불통 행보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최근 불거진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하여 박 지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지인 채용 청탁 정황이 드러난 점은 도정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강조했다.

민주연구원은 “박완수 도정 3년은 경남의 미래를 과거로 되돌린 시간이었다”며, “지금이라도 독단적 행정을 멈추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